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2. 08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2. 08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경북경제동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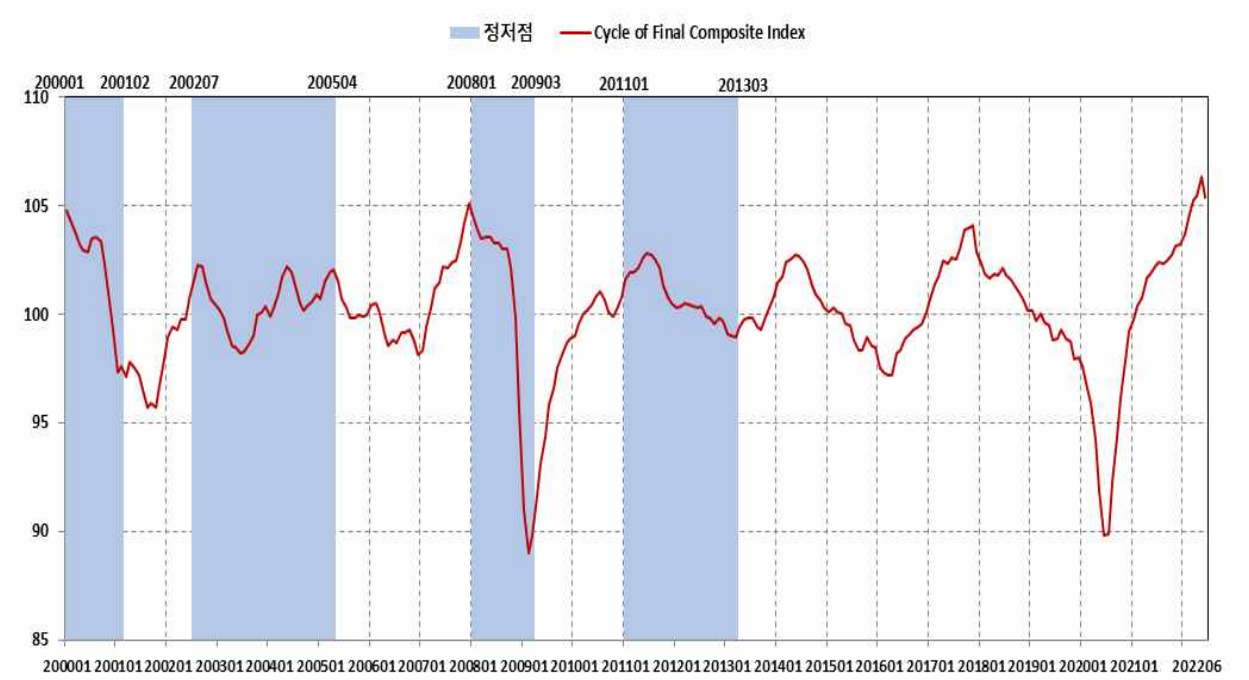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2.06
	BSI	22.08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2.07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2.07
	신용카드사용액	22.05
투 자	자본재수입액	22.07
건 설	건축허가면적	22.07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2.07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2.07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2.08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2.06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2.07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2.07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2.06

경북경제동향 총괄

경 기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소비둔화로 수출물량 감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환율 상승 등이 수입액 증가 견인, 내수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 지속
생 산	•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금속가공 업종의 생산 감소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휴가철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하락세 지속
투 자	• 자본재수입은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입 감소,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의 수입 증가
건 설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치산·치수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교 역	• 7월 수출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고 용	•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명), 제조업(1만 8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2천 명) 등에서 상승 견인 •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둔화 움직임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월대비 감소(−0.4%)
금 융	• 지난달에 이어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기업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구미, 포항, 경산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 축소, 7월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35.1% 증가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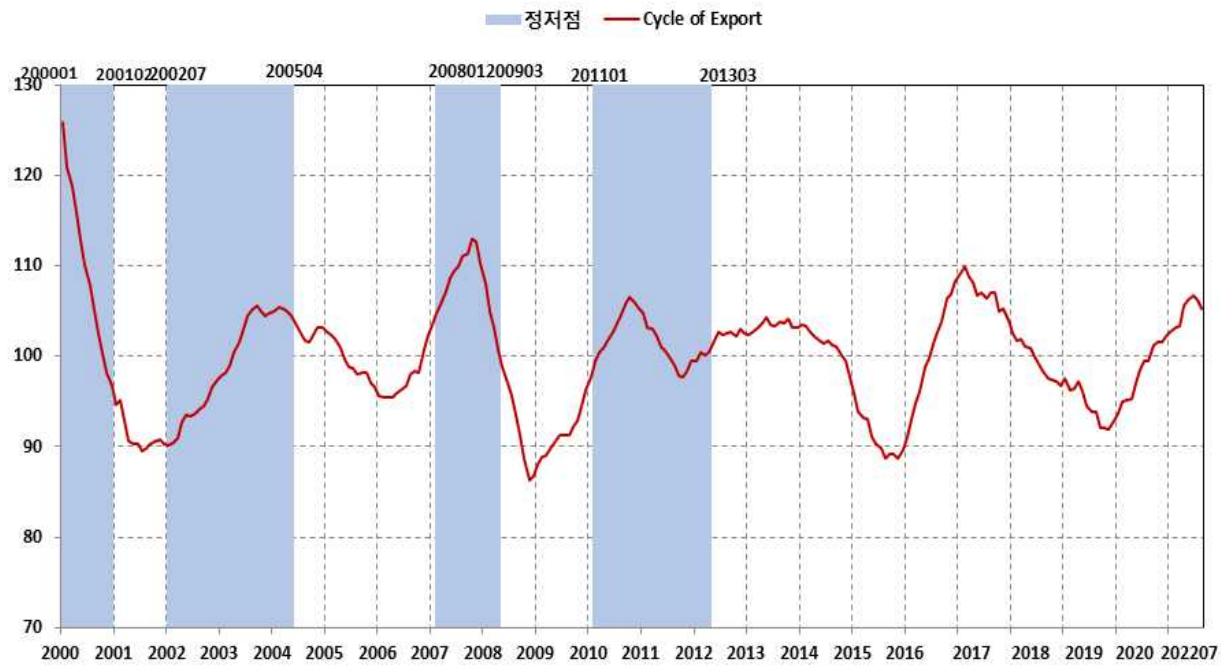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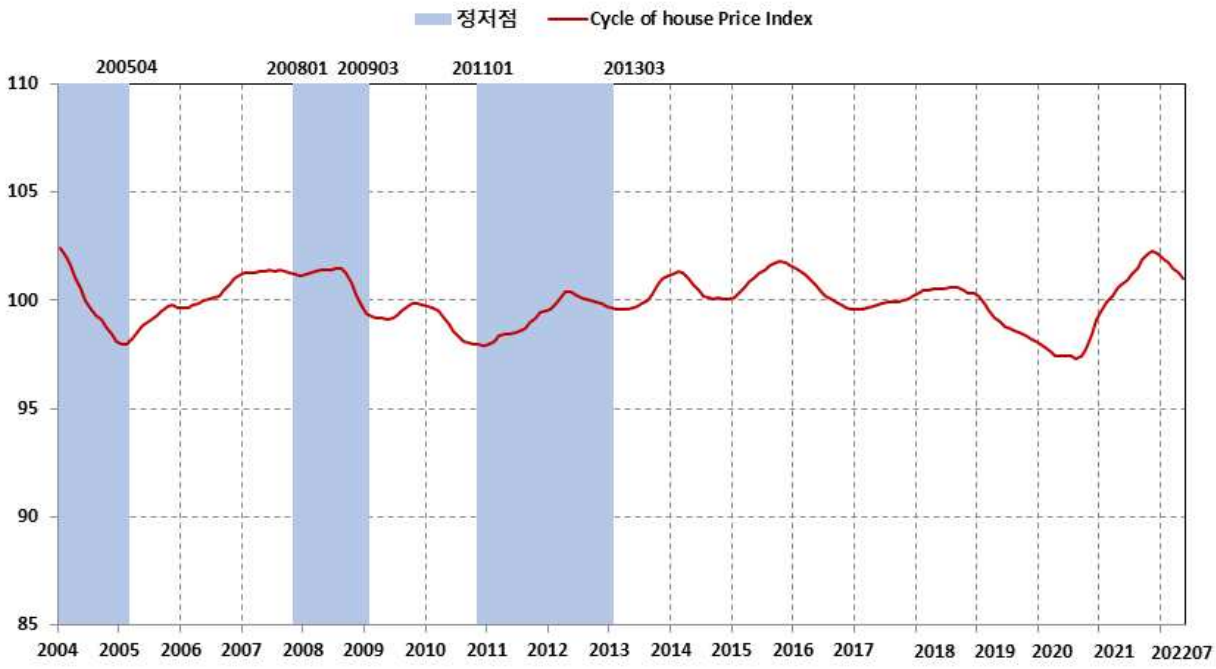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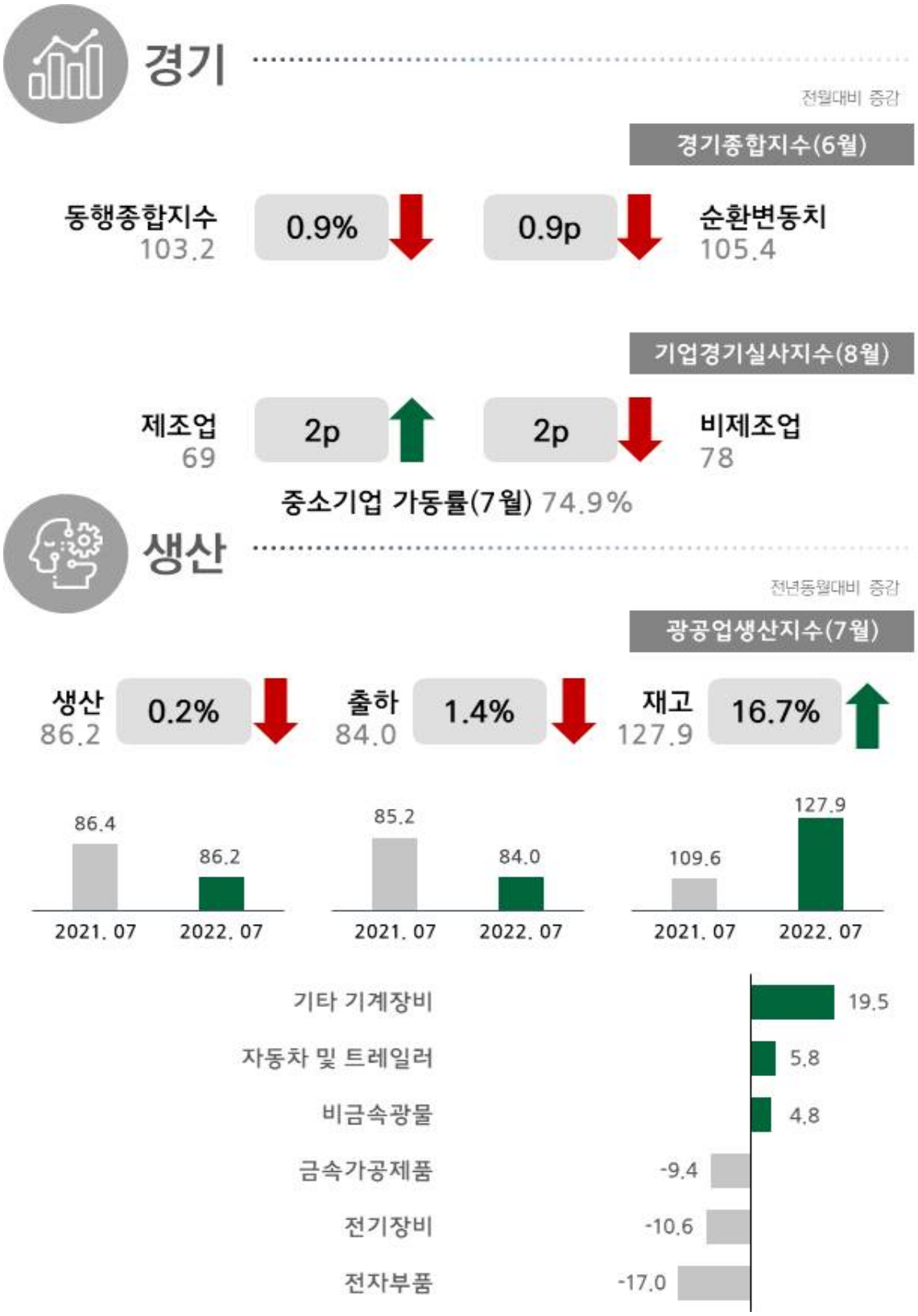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7월)	신용카드사용액(5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7월)
89.1	1조 3,601억 원	6,684대
9.5% ▼	24.9% ▲	8.1%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본재수입액(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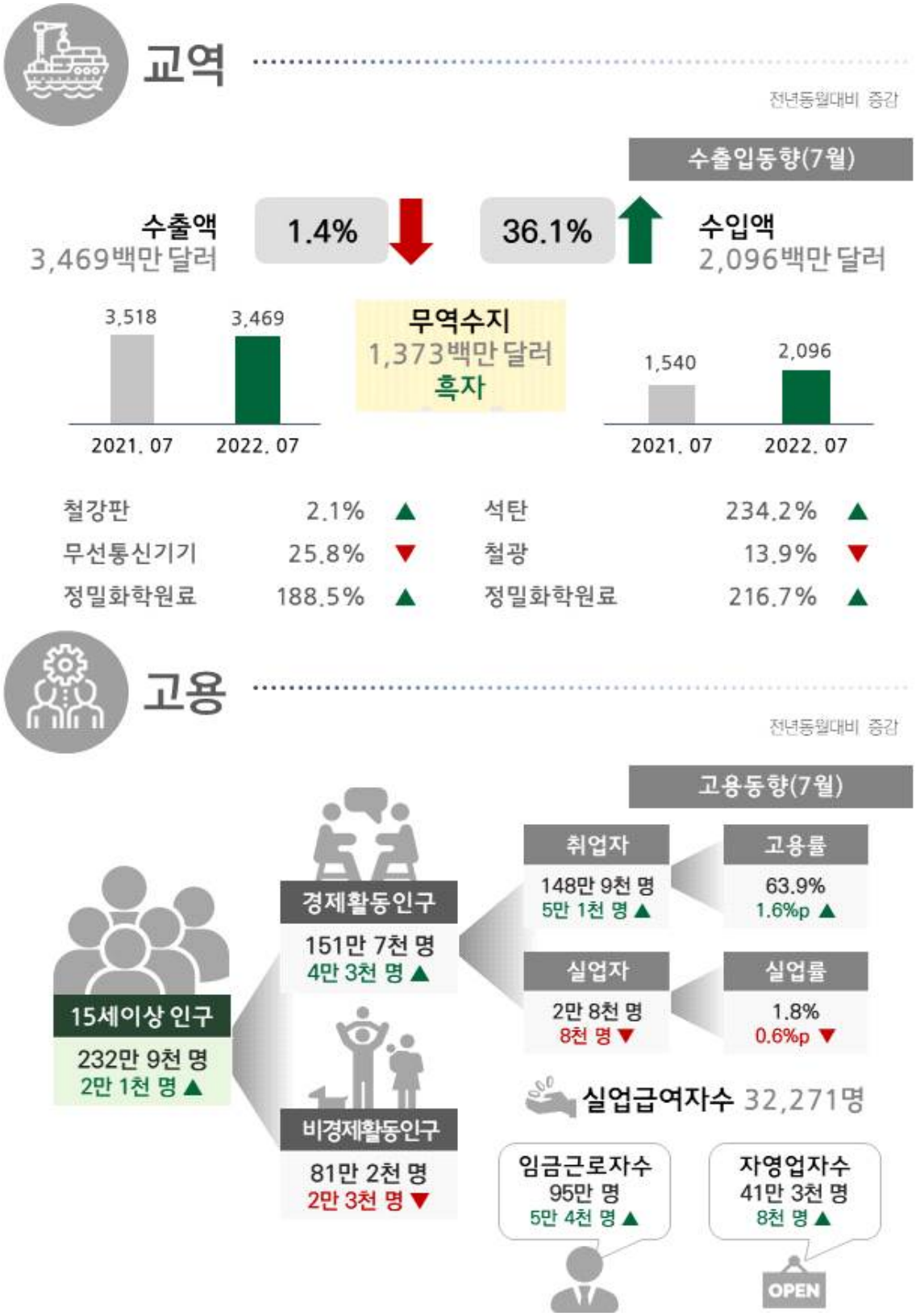
259,167천 달러 1.2%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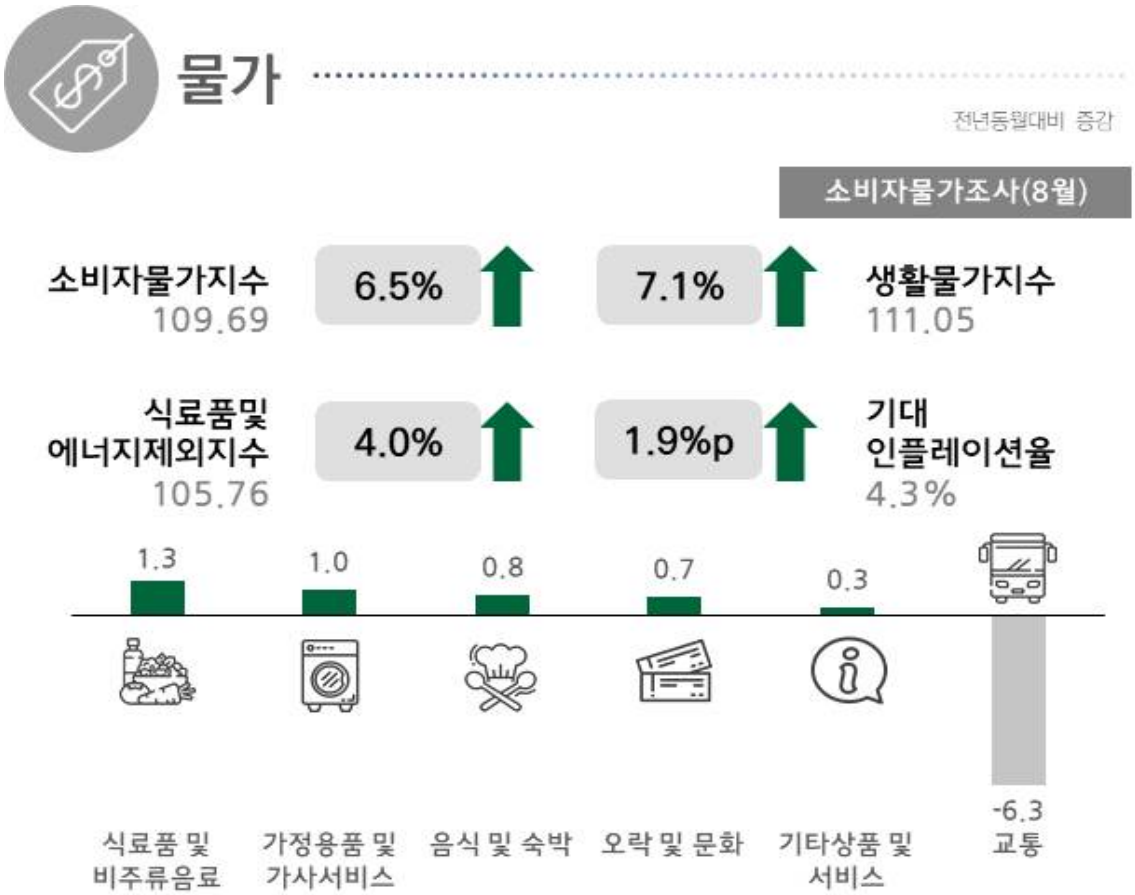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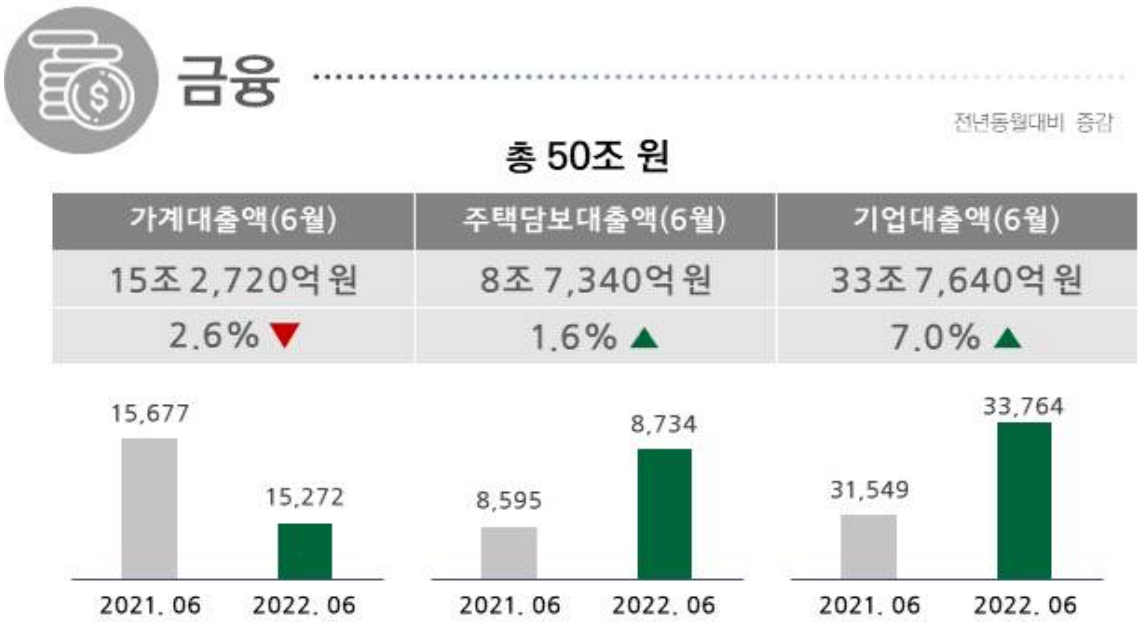
건축물허가면적(7월)	건축물착공면적(7월)	건설수주액(7월)
893,707㎡	563,404㎡	9,948억 원
19.5% ▼	15.8% ▼	31.7%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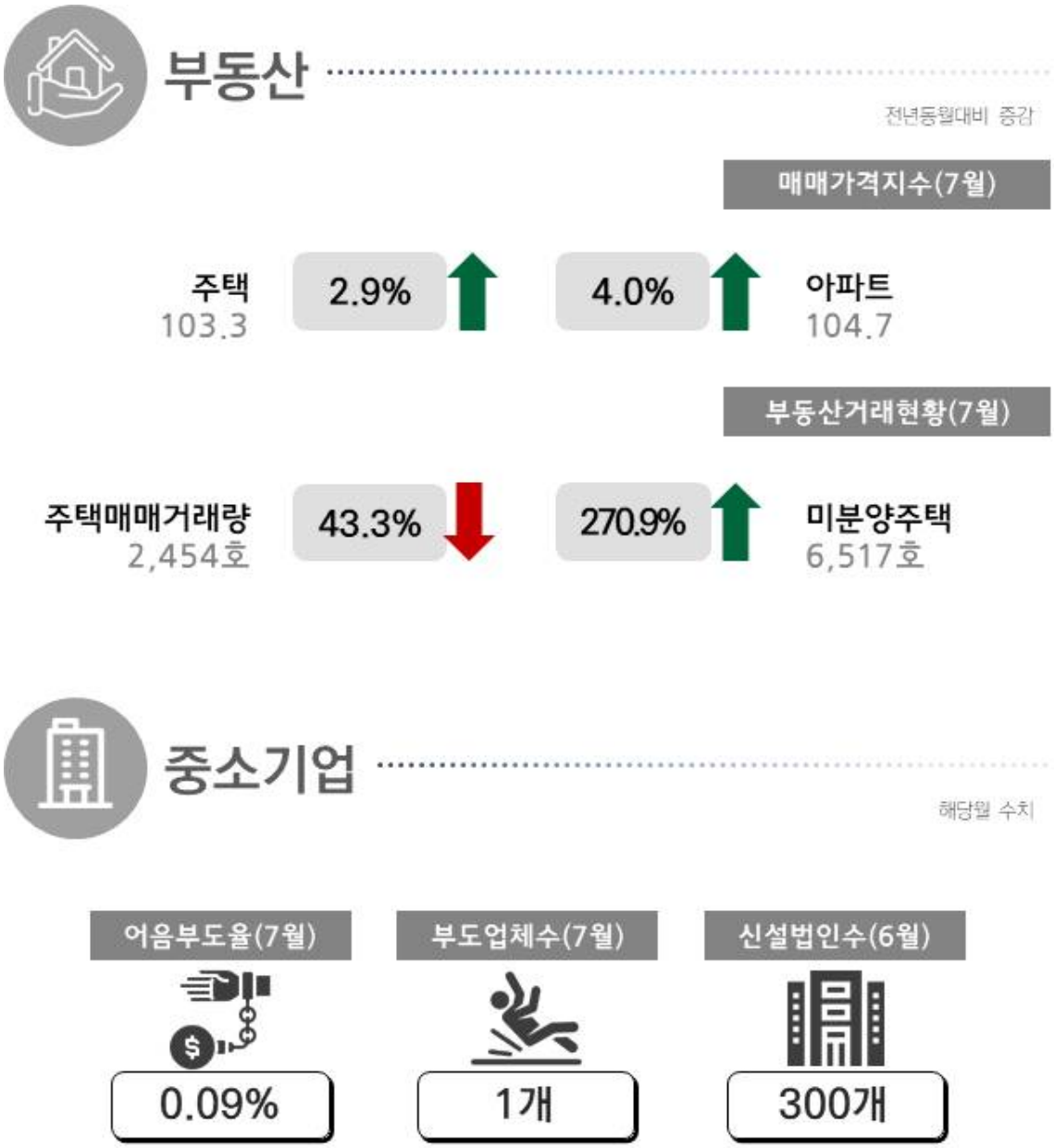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6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9% 하락

○ 동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9% 하락, 순환변동치는 105.4로 전월차 0.9p 감소

- 구성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0.4%), 수입액(실질)(0.3%)은 증가,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0.5%),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1.2%), 제조업전력사용량(−1.1%),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1.0%), 수출액(실질)(−9.1%)은 감소

6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21.4로 전월대비 0.3% 상승,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차 0.2p 증가

- 구성지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0.9%), 건설기성액(1.4%), 수입액(0.3%)은 전월대비 상승, 광공업생산지수(−0.4%), 소매판매액지수(−0.4%), 내수출하지수(−0.1%)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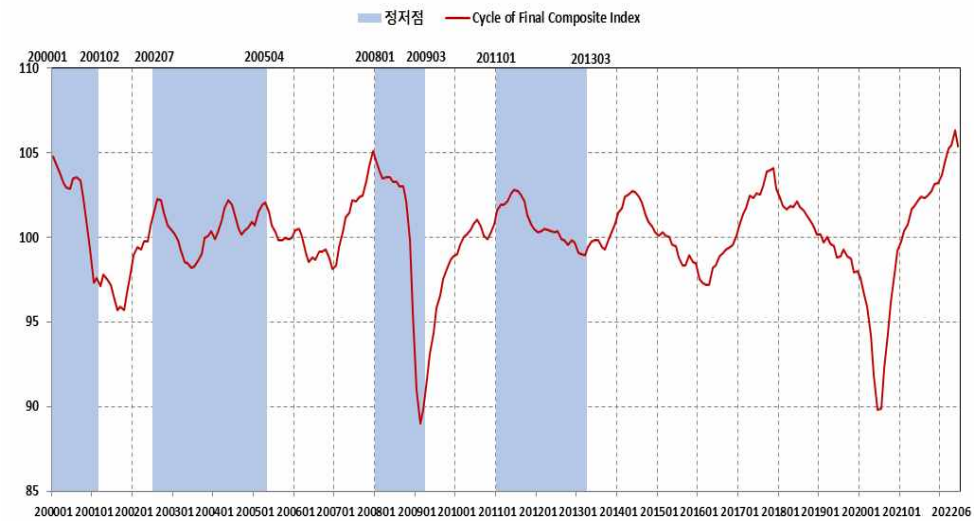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2					
		01	02	03	04p	05p	06p
경북	동행종합지수	101.1	102.0	103.0	103.3	104.1	103.2
	전월대비(%)	0.6	0.6	1.3	0.3	0.8	−0.9
	순환변동치	103.7	104.4	105.3	105.4	106.3	105.4
	전월차(p)	0.5	0.7	0.9	0.1	0.9	−0.9
전국	동행종합지수	120.4	120.8	120.8	120.7	121.0	121.4
	전월대비(%)	0.8	0.3	0.0	−0.1	0.2	0.3
	순환변동치	102.4	102.6	102.4	102.1	102.2	102.4
	전월차(p)	0.6	0.2	−0.2	−0.3	0.1	0.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8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증가,
비제조업 BSI
감소

8월 제조업 BSI는 69, 비제조업 BSI는 78

○ 제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대비 2p, 9월 업황 전망BSI는 72로 6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99로 전월대비 6p, 9월 전망은 98로 11p 각각 증가
- 생산BSI는 92로 전월대비 2p, 9월 전망은 92로 3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74로 전월대비 7p, 9월 전망은 71로 9p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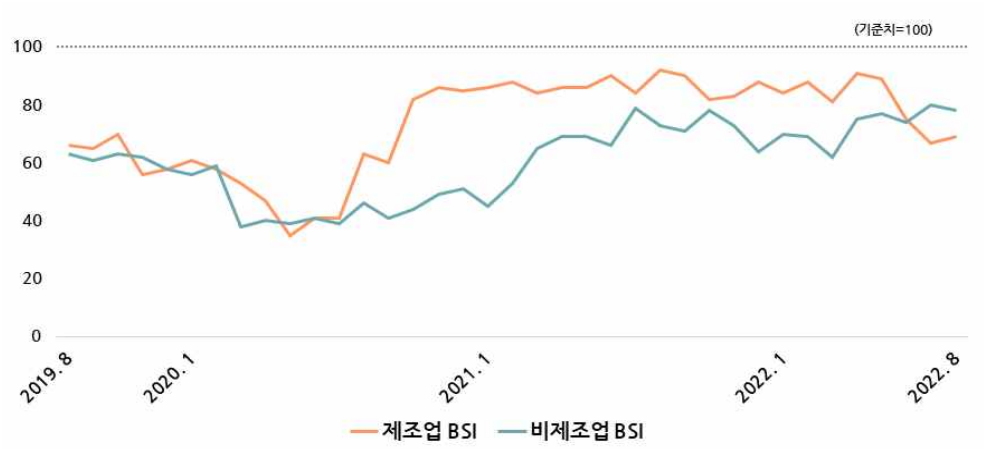
○ 비제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대비 2p, 9월 업황 전망BSI는 67로 8p 각각 감소

- 매출BSI는 86으로 전월대비 10p, 9월 전망은 67로 8p 각각 감소
- 채산성BSI는 84로 전월대비 5p, 9월 전망은 82로 5p 각각 감소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2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제조업 BSI	84 (83)	88 (87)	81 (91)	91 (80)	89 (93)	75 (90)	67 (71)	69 (66)	– (72)
비제조업 BSI	70 (58)	69 (66)	62 (72)	75 (69)	77 (81)	74 (75)	80 (73)	78 (75)	– (67)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년 8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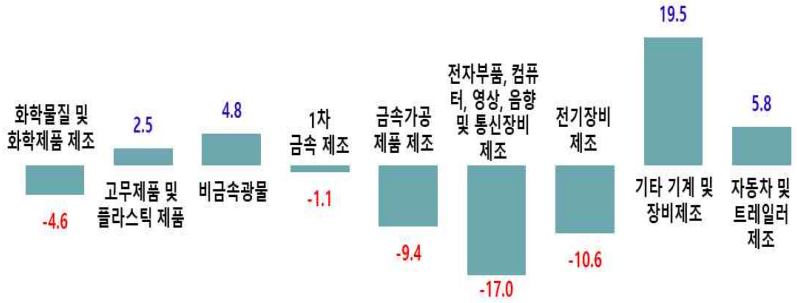
생산

6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재고 증가

광공업생산지수는 86.2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전월대비 0.7% 상승

○ 광공업생산지수는 기계장비, 비금속광물광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전기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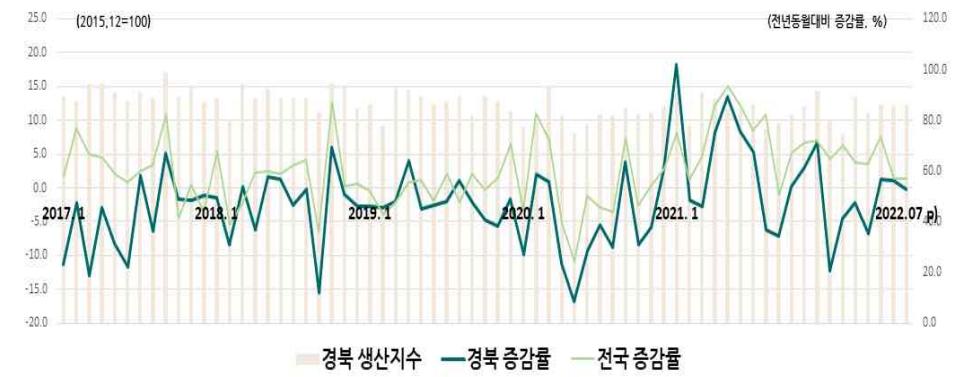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에서 기계장비(19.5%)는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집진장치, 선박용내연기관 등에서 증가, 비금속광물광업(382.8%)은 자갈, 쇄석 등에서 증가
- 전자부품(−17.0%)은 휴대용전화기, DDI, 기타LCD 등에서 감소, 전기장비(−10.6%)는 태양광모듈, 납축전지, 차량용조명등 등에서 감소
- 금속가공(−9.4%)은 용접봉, 판금제품, 조립식건축물용금속패널 등에서 감소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85.0 (−3.7)	80.6 (−12.1)	74.4 (−4.6)	89.0 (−2.3)	82.6 (−6.8)	86.0 (1.3)	**85.6 (1.1)**	**86.2 (−0.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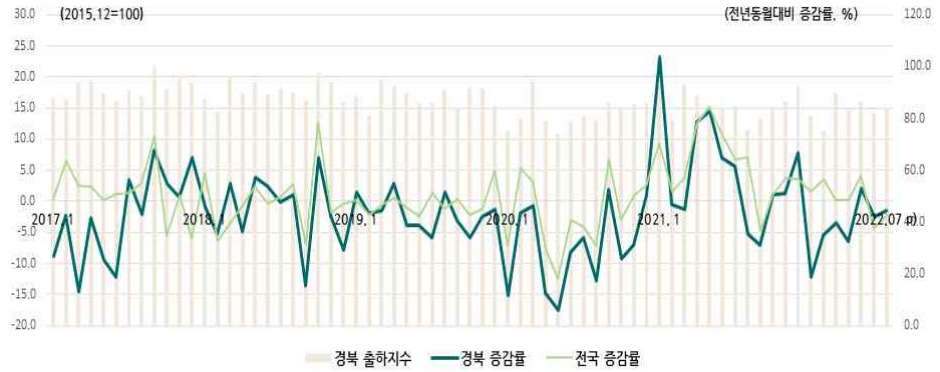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1.4% 하락, 전월대비 2.3% 상승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자동차(7.5%), 전기·가스·증기업(21.6%), 비금속광물업(435.4%) 등이 증가, 전자부품(−13.9%), 1차금속(−2.8%), 화학제품(−6.4%)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85.5	81.3	74.8	89.7	83.1	86.5	**82.1**	**84.0**
(4.5)	(−12.1)	(−5.6)	(−3.5)	(−6.4)	(2.1)	**(−2.5)**	**(−1.4)**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공업제품재고지수 전년동월대비 16.7% 상승, 전월대비 0.9% 하락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기계장비(67.2%), 1차금속(25.3%), 화학제품(17.9%) 등이 증가, 전자부품(−8.7%), 전기장비(−7.6%), 섬유제품(−5.2%)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120.1	122.9	122.2	124.6	125.6	127.3	**129.1**	**127.9**
(14.8)	(13.4)	(15.5)	(19.8)	(16.9)	(16.5)	**(20.1)**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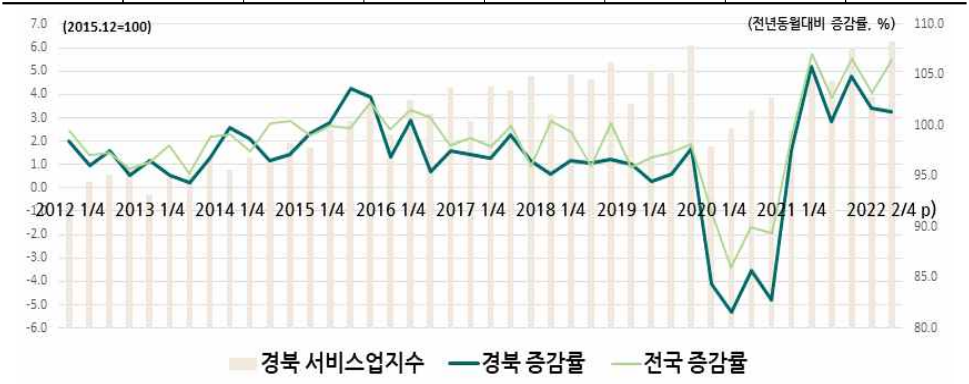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3.2%, 전분기대비 5.2% 각각 상승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2022	
3/4	4/4	1/4	2/4	3/4	4/4	1/4p	2/4p
101.5	102.8	99.5	104.8	104.3	107.7	**102.9**	**108.3**
(−3.5)	(−4.8)	(1.6)	(5.1)	(2.8)	(4.8)	**(3.4)**	**(3.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7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7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9.5% 하락, 전월대비 6.0% 상승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89.1로 전년동월대비 9.5% 하락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03.0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91.5로 전년동월대비 11.9%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은 증가, 기타상품, 가전제품, 음식료품, 신발·가방, 화장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대형 소매점	85.8 (3.9)	99.3 (16.5)	70.4 (−21.0)	78.9 (−2.0)	78.6 (−1.5)	84.4 (−3.8)	**80.2 (1.0)**	**89.1 (−9.5)**
대형마트	88.0 (2.2)	103.0 (15.0)	71.8 (−23.0)	80.4 (−1.3)	77.5 (−3.6)	83.2 (−6.4)	**78.9 (−3.2)**	**91.5 (−11.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3,60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9% 상승

○ 기타(163.6%), 금융·보험(39.4%), 숙박·음식(25.7%)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가구·가전(−1.8%)의 사용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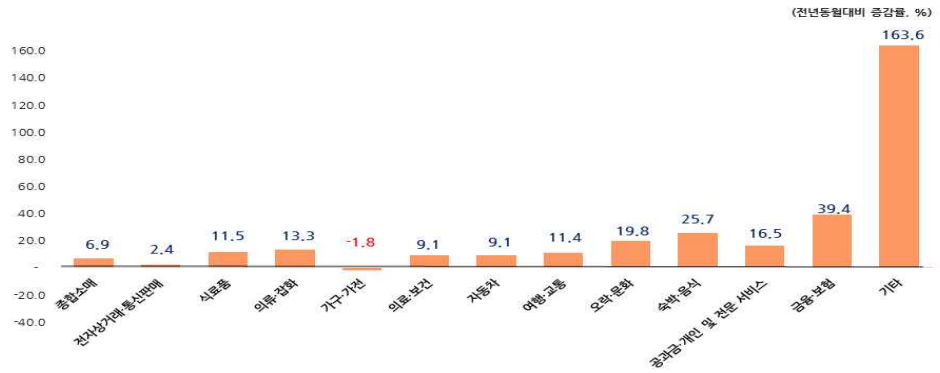
- 종합소매(6.9%), 숙박·음식(25.7%)의 사용액 모두 증가
- 종합소매(6.9%)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백화점(10.1%), 편의점(22.3%), 슈퍼마켓(5.8%), 대형마트(2.5%)의 사용액 증가
- 숙박·음식(25.7%) 사용액 중 숙박(29.5%), 음식점(25.5%)의 사용액 모두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10	11	12	01	02	03	04	05
1,174.0 (20.1)	1,175.8 (20.1)	1,109.1 (20.3)	1,154.0 (28.7)	976.0 (10.8)	1,142.3 (12.9)	1,233.3 (22.0)	**1,360.1** **(24.9)**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7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684대로 전년동월대비 8.1% 하락

○ 신규등록대수는 1달 만에 6천 대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	07
74,558 (−6.2)	5,899 (−18.8)	4,608 (−12.0)	5,686 (−19.0)	5,909 (−15.0)	6,223 (−2.7)	5,382 (−26.0)	**6,684** **(−8.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74,558	54,933	1,206	17,432	987
2022. 1.	5,899	4,336	95	1,386	82
2.	4,608	3,280	53	1,203	72
3.	5,686	4,264	68	1,269	85
4.	5,909	4,382	73	1,379	75
5.	6,223	4,448	96	1,601	78
6.	5,382	3,816	95	1,372	99
7.	6,684	4,861	103	1,624	96

투자

7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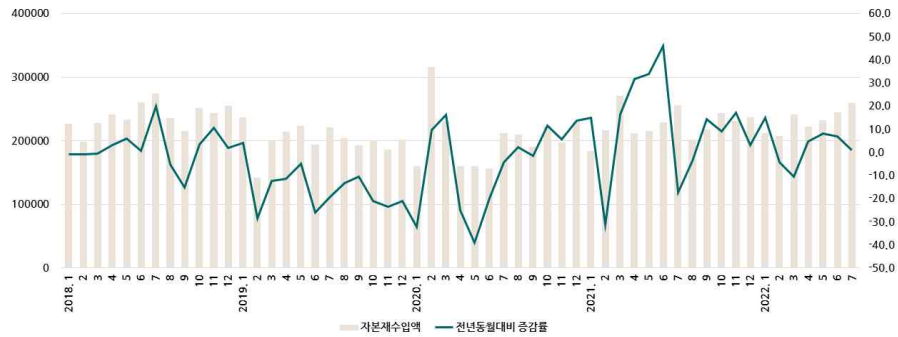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59,167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6.1%)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기기(9.6%), 수송장비(6.7%)의 수입은 증가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측정시험기(−50.1%), 사무기기(−75.3%), 가열 및 건조기(−37.6%)의 수입은 감소
- 전기·전자기기 중 발전기(19,990%), 증폭기(566.7%)의 수입은 증가, 액정디바이스(−96.9%), 무선통신기기(−68.8%)의 수입은 감소
- 수송장비는 철도차량(535.5%)의 수입 증가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1	2022						
12	01	02	03	04	05	06	07
237,066	211,889	207,646	241,682	221,684	232,375	244,452	**259,167**
(3.2)	(15.0)	(−4.1)	(−10.6)	(4.7)	(8.1)	(7.0)	**(1.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7월 건축물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9.5% 하락한 893,707㎡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은 증가, 공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102.6% 증가한 561,002㎡, 상업용은 55.6% 증가한 131,450㎡, 공업용은 51.6% 감소한 44,607㎡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5.8% 하락한 563,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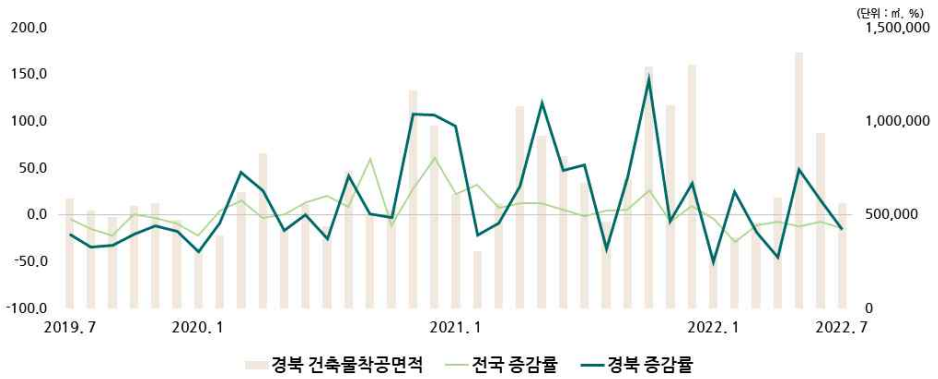
- 용도별로 상업용은 증가, 주거용, 공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30.8% 감소한 191,569㎡, 상업용은 38.4% 증가한 116,890㎡,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61.9% 감소한 35,104㎡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분	2022						
	01	02	03	04	05	06	07
건축허가면적	1,462,515 (341.5)	366,156 (−31.4)	1,364,166 (67.6)	1,203,876 (34.7)	812,458 (12.1)	639,980 (15.6)	**893,707** **(−19.5)**
건축착공면적	301,970 (−50.7)	378,993 (24.3)	458,697 (−18.4)	590,629 (−45.3)	1,365,713 (48.5)	935,881 (14.9)	**563,404** **(−15.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7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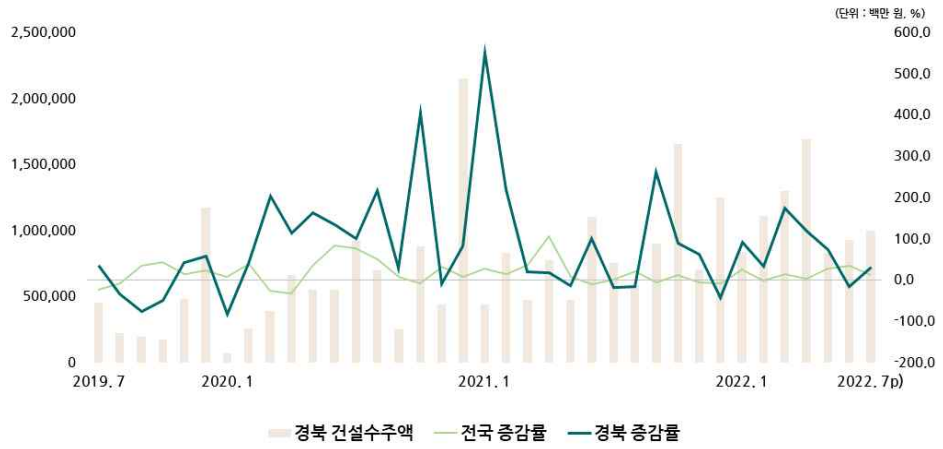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치산·치수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1.7% 상승한 994,778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820,757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4% 상승, 토목부문 174,021백만 원으로 19.7% 하락
- (발주자별) 공공부문 106,191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5%, 민간부문 866,363백만 원으로 28.3% 각각 상승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9,943,926	836,780	1,111,722	1,299,151	1,689,240	827,288	926,796	994,778
(27.2)	(91.3)	(34.1)	(173.3)	(118.3)	(73.2)	(-16.1)	(31.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7월 수출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 수출액은 3,469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 하락, 수입액은 2,096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1% 상승, 무역수지는 1,373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강판(2.1%), 무선통신기기(−25.8%), 정밀화학원료(188.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40.3%)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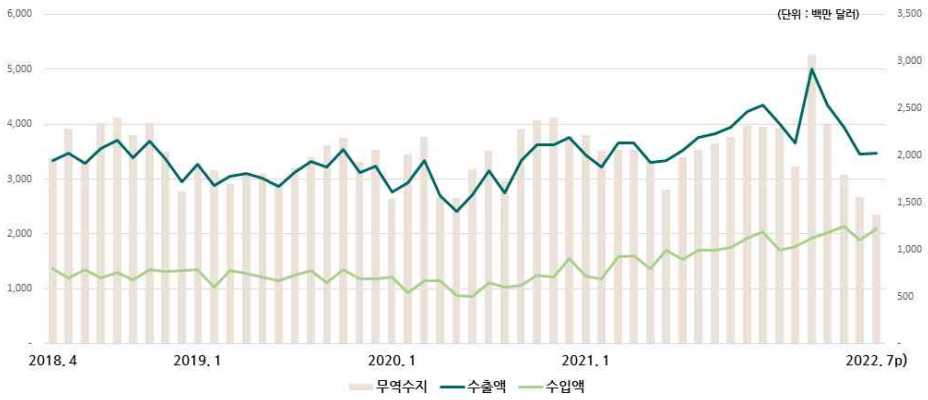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석탄(234.2%), 철광(−13.9%), 정밀화학원료(216.7%), 합금철선철및고철(80.2%)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6.0%), 미국(−32.9%), 베트남(2.4%), 일본(2.2%) 순

○ 포항시 2022년 7월 화물수송은 4,145,667톤(R/T)으로 외항 3,467,714톤(R/T)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						
	01	02	03	04	05p	06p	07p
수출액	4,007 (16.7)	3,652 (13.2)	4,998 (37.0)	4,349 (18.7)	**3,940 (19.4)**	**3,455 (3.4)**	**3,469 (−1.4)**
수입액	1,707 (38.3)	1,771 (49.9)	1,923 (20.8)	2,026 (26.2)	**2,146 (56.4)**	**1,894 (10.9)**	**2,096 (36.1)**
무역수지	2,300	1,882	3,074	2,323	**1,794**	**1,560**	**1,373**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7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51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 명(2.9%)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하락, 전월대비 1.5% 상승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	07
1,457 (−1.4)	1,431 (0.8)	1,447 (1.2)	1,484 (2.2)	1,507 (2.7)	1,539 (4.0)	1,530 (4.3)	**1,517** **(2.9)**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월 취업자 14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상승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1천 명(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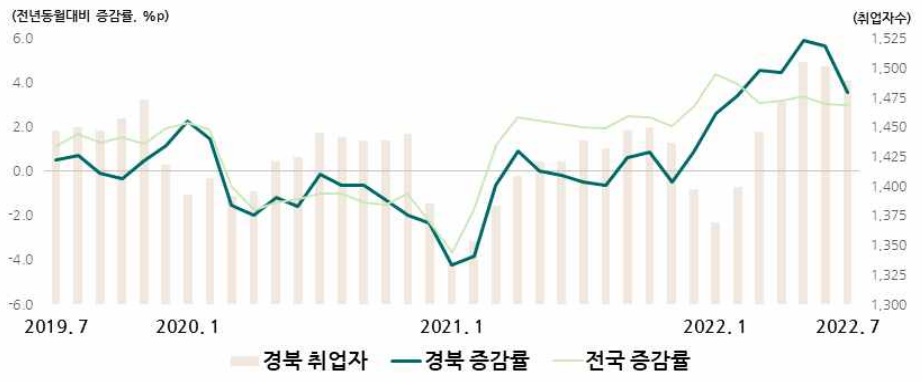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명), 제조업 (1만 8천 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1만 2천 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7천 명)은 증가, 건설업(−2천 명), 농림어업(−2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9대 광역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3.5%)은 경기(6.5%), 제주(5.5%), 충북(3.6%)에 이은 4번째 상승폭 기록

○ 취업자 중 제조업은 2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1만 6천 명으로 3.1% 각각 상승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	07
1,410 (−0.6)	1,369 (2.7)	1,399 (3.4)	1,446 (4.6)	1,471 (4.5)	1,505 (5.9)	1,501 (5.6)	**1,489** **(3.5)**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7월 고용률 63.9%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 1.9%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6%p 증가한 63.9%로 전국평균(62.9%)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8.5%로 전국평균 69.1%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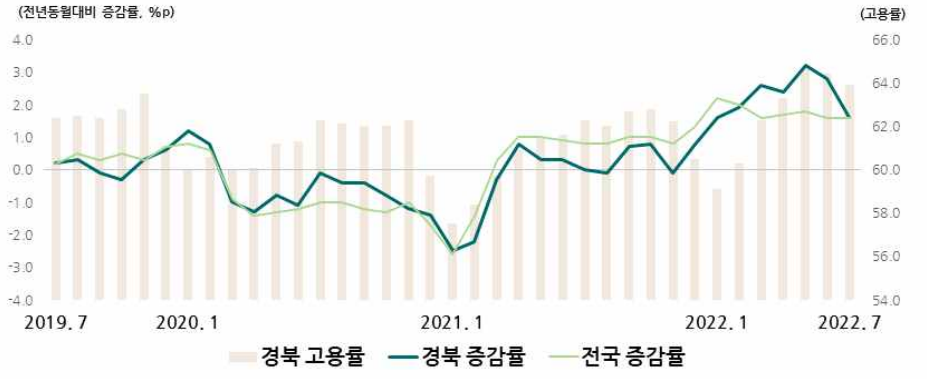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1.8%로 전국평균(2.9%)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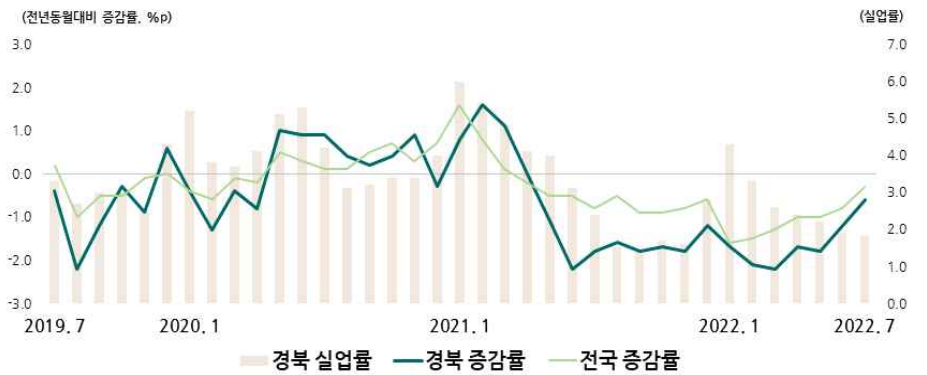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2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	07
고용률	61.0 (−0.1)	59.1 (1.6)	60.3 (1.9)	62.3 (2.6)	63.3 (2.4)	64.7 (3.2)	64.4 (2.8)	**63.9** **(1.6)**
실업률	3.2 (−0.8)	4.3 (−1.7)	3.3 (−2.1)	2.6 (−2.2)	2.4 (−1.7)	2.2 (−1.8)	1.9 (−1.2)	**1.8** **(−0.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7월 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한 95만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4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4.8%), 임시근로자수(6.2%), 일용근로자수(18.3%)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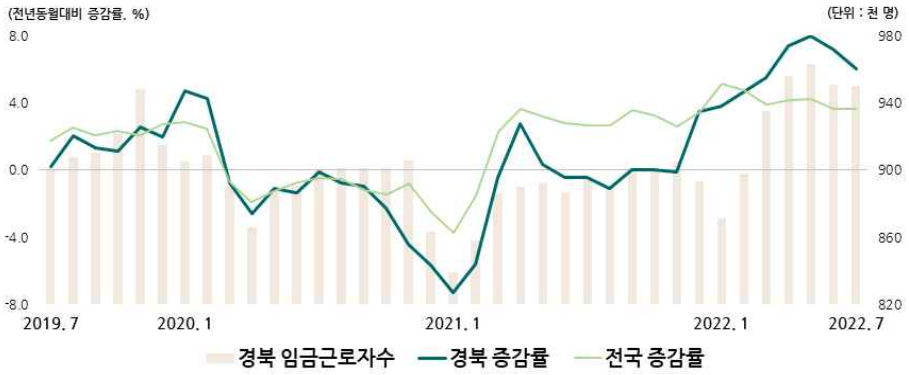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한 41만 3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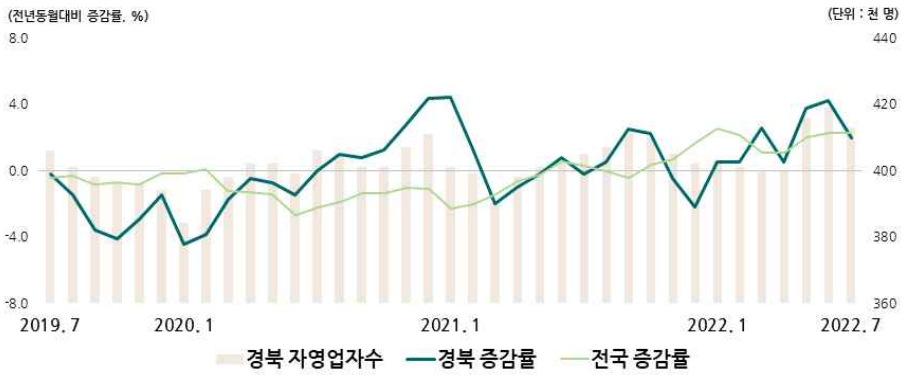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1.9%) 모두 증가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	07
임금	887	871	898	935	956	963	951	**950**
근로자	(-0.8)	(3.8)	(4.7)	(5.6)	(7.5)	(8.0)	(7.3)	**(6.0)**
자영	402	403	401	400	400	416	419	**413**
업자	(0.4)	(0.4)	(0.4)	(2.6)	(0.6)	(3.7)	(4.1)	**(2.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9로 전년동월대비 6.5%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

-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 음식·숙박(0.8%), 오락·문화(0.7%), 기타 상품·서비스(0.3%), 보건(0.2), 의류·신발(0.1%)은 상승, 통신, 주류·담배, 교육은 보합, 주택·수도·전기·연료(−0.1%), 교통(−6.3%)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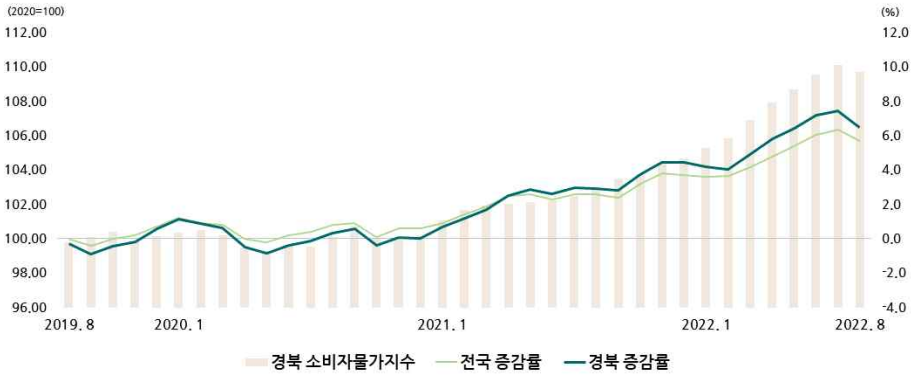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11.05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 전월대비 1.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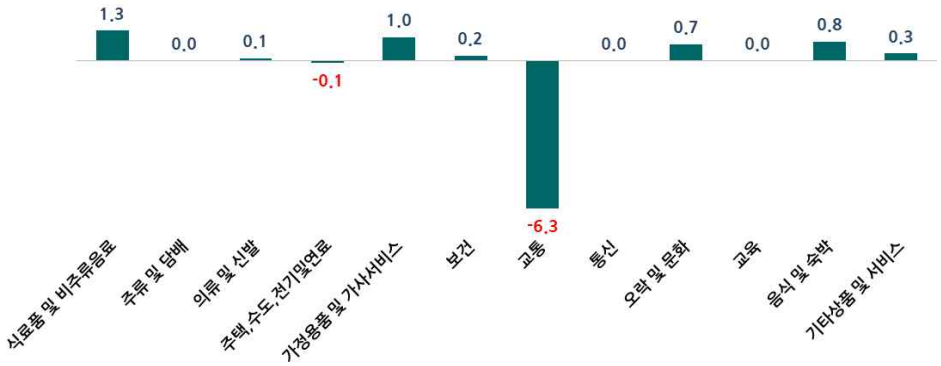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14.72로 전년동월대비 8.9%, 식품이외는 108.69로 5.9%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연간	02	03	04	05	06	07	08
소비자 물가지수	102.74 (2.7)	105.82 (4.1)	106.93 (4.9)	107.92 (5.8)	108.69 (6.4)	109.58 (7.2)	110.11 (7.4)	**109.69 (6.5)**
생활 물가지수	103.47 (3.5)	106.75 (4.6)	108.46 (5.8)	109.52 (6.7)	110.64 (7.7)	111.73 (8.5)	112.17 (8.8)	**111.05 (7.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6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2.6% 하락한 15.3조 원으로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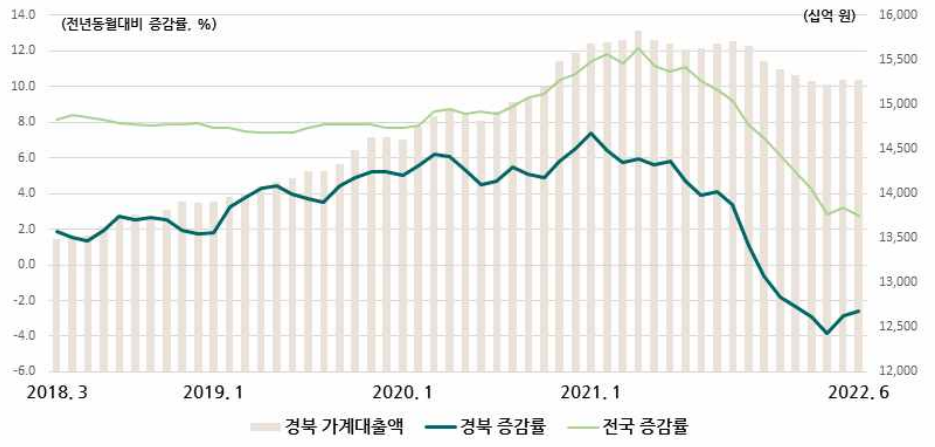
○ 총 대출액 50조 원 중 가계대출은 30.8% 차지

6월 가계대출
전년동월대비 하락,
주택담보대출 증가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2022					
연간	12	01	02	03	04	05	06
15,579	15,487	15,388	15,330	15,267	15,218	15,272	**15,272**
(6.5)	(−0.6)	(−1.8)	(−2.3)	(−2.9)	(−3.8)	(−2.8)	**(−2.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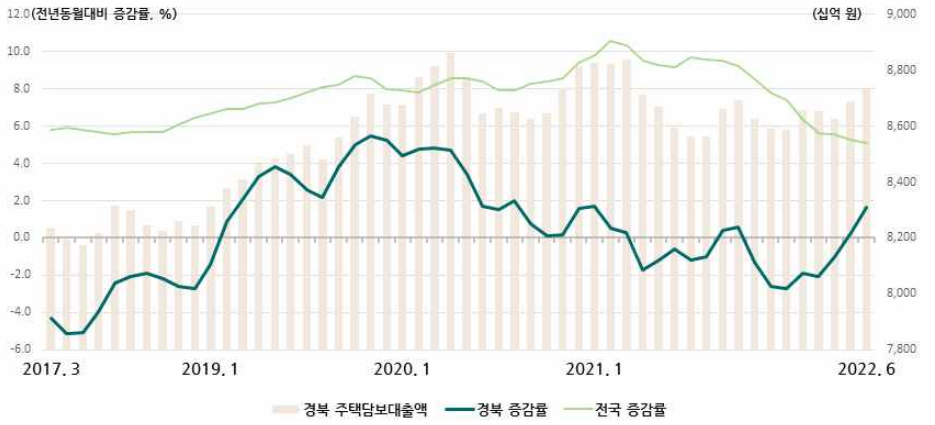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7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전월대비 증가

○ 총 가계대출 15.3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7.2%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2022					
연간	12	01	02	03	04	05	06
8,815	8,590	8,587	8,656	8,653	8,627	8,691	**8,734**
(1.6)	(−2.6)	(−2.7)	(−1.9)	(−2.1)	(−1.0)	(0.3)	**(1.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6월 기업대출액은 33.8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0% 상승한 33.8조 원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2022					
연간	12	01	02	03	04	05	06
30,905	32,268	32,640	32,734	33,180	33,398	33,707	**33,764**
(10.8)	(4.4)	(5.0)	(4.8)	(5.9)	(5.8)	(6.6)	**(7.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103.3

- 구미(5.4%), 포항(3.0%), 경산(0.7%)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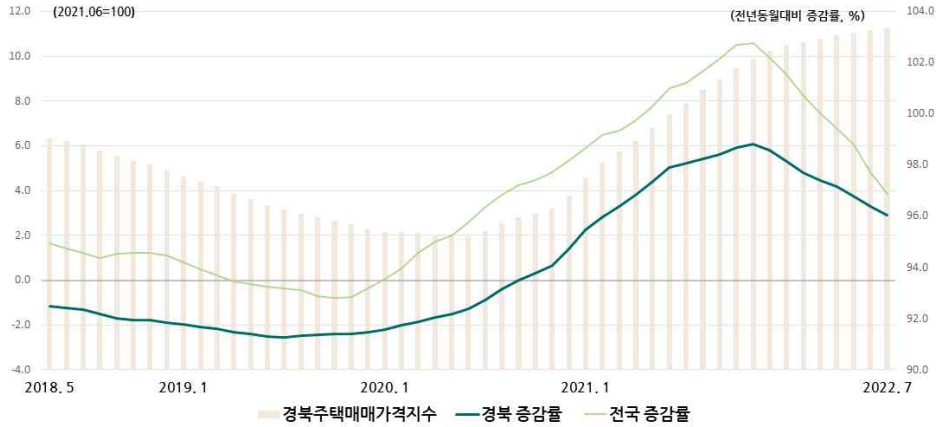
○ 7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한 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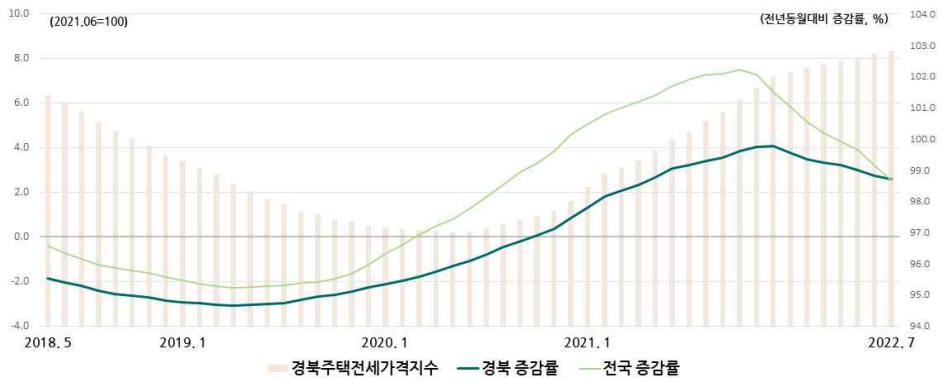
- 구미(5.7%), 포항(4.0%), 경산(0.5%)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12	01	02	03	04	05	06	07
매매	102.5 (5.8)	102.7 (5.3)	102.8 (4.8)	102.9 (4.5)	103.1 (4.2)	103.2 (3.8)	103.3 (3.3)	**103.3** **(2.9)**
전세	102.0 4.1	102.1 3.8	102.3 3.5	102.4 3.3	102.5 3.2	102.6 3.0	102.7 2.7	**102.8** **(2.6)**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7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7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한 104.7

- 안동(9.6%), 구미(6.5%), 포항(3.3%), 경산(0.4%)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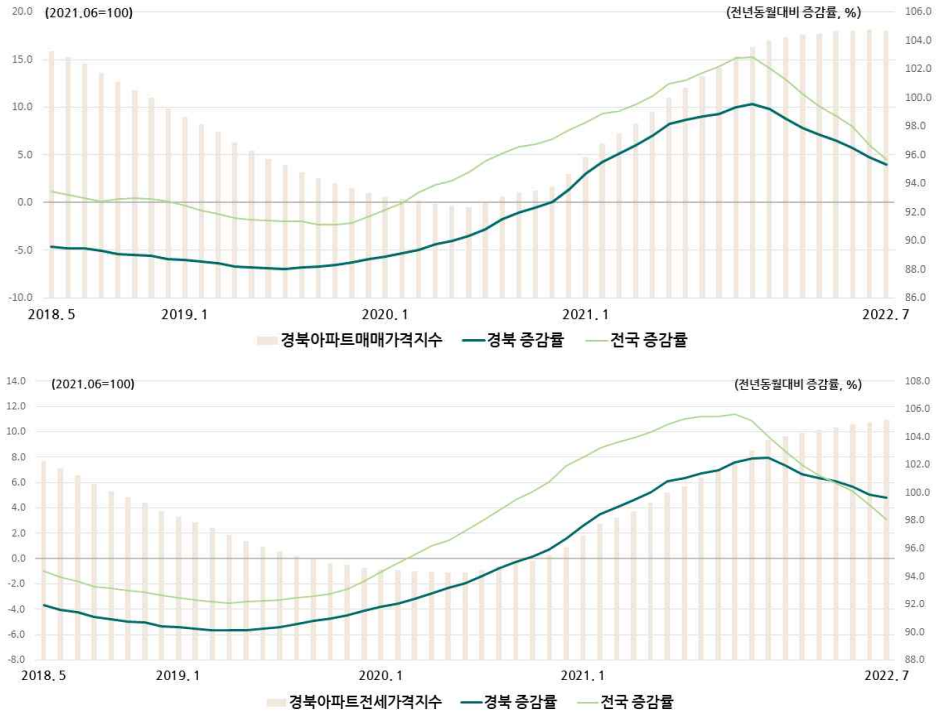
○ 7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한 105.3

- 구미(7.1%), 포항(5.7%), 안동(6.6%), 경산(0.7%)은 상승

아파트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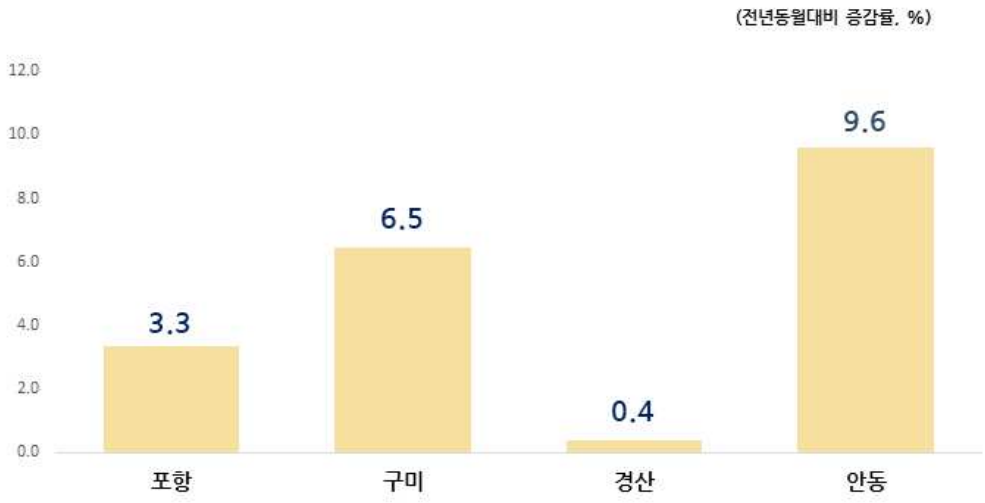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12	01	02	03	04	05	06	07
매매	104.0 9.9	104.3 8.8	104.4 7.8	104.5 7.1	104.6 6.5	104.7 5.8	104.8 4.8	**104.7** **(4.0)**
전세	103.8 8.0	104.1 7.3	104.3 6.7	104.5 6.4	104.7 6.1	104.9 5.7	105.1 5.1	**105.3** **(4.8)**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7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감소

○ 주택매매거래량은 2,454호로 전년동월대비 43.3% 감소, 전국도 감소(−55.5%)

- 안동(−54.4%), 경산(−52.8%), 포항(−50.1%)의, 구미(−43.0%)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감소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1	2022						
연간	01	02	03	04	05	06	07
54,157	2,814	3,057	3,681	3,869	3,887	3,203	**2,454**
(0.0)	(−40.5)	(−29.4)	(−36.0)	(−25.8)	(−21.5)	(−28.7)	**(−43.3)**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7월 미분양주택은 6,517호로 전년동월대비 270.9% 증가, 전월대비 35.1% 증가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2,952호), 경주(1,173호), 김천시(593호) 순

중소기업

7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09%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5%p 증가, 전월대비 0.21%p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1%이고, 경북·경기(0.09%), 전북·경남(0.02%), 제주(0.01%), 강원·충북·전남(0.0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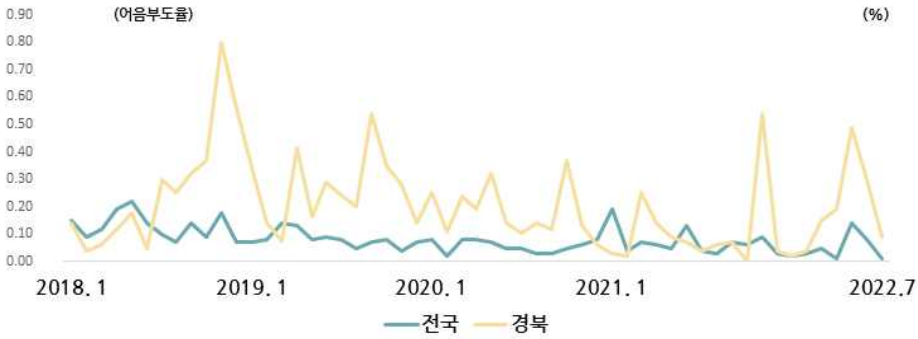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전년동월대비 1개, 전월대비 1개 각각 증가

- 총 부도금액은 11.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억 원 증가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1	2022						
	12	01	02	03	04	05	06	07
어음부도율	0.04	0.02	0.04	0.15	0.19	0.49	0.30	0.09
부도업체수	0 −4	1 1	0 0	1 1	0 −1	2 1	0 −1	1 1
신설법인수	368 −30	392 18	313 −6	341 −22	325 3	303 23	300 −7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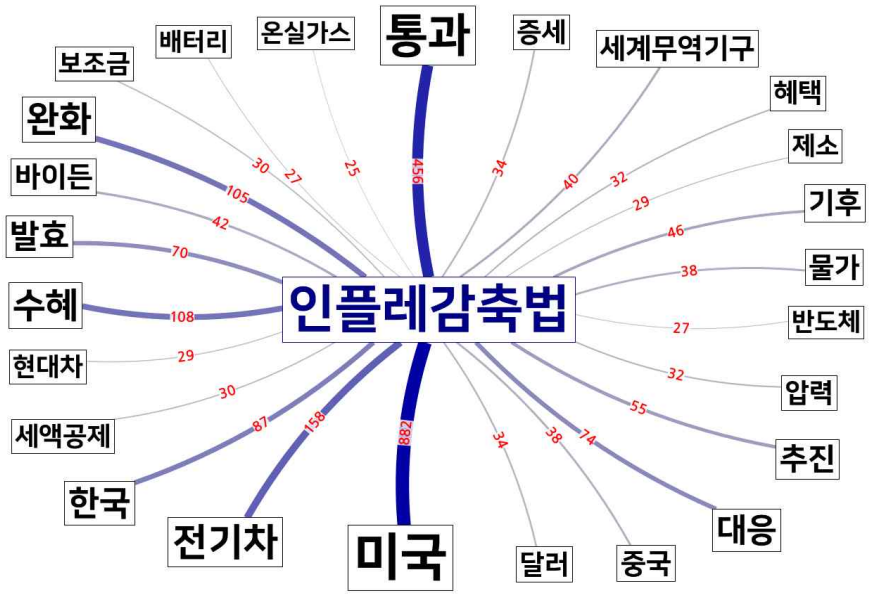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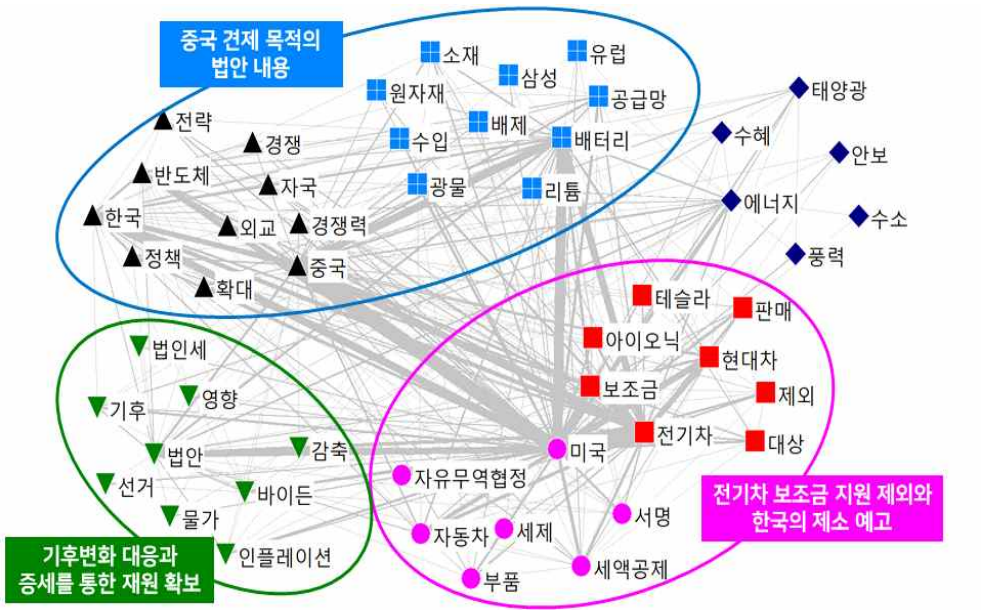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인플레감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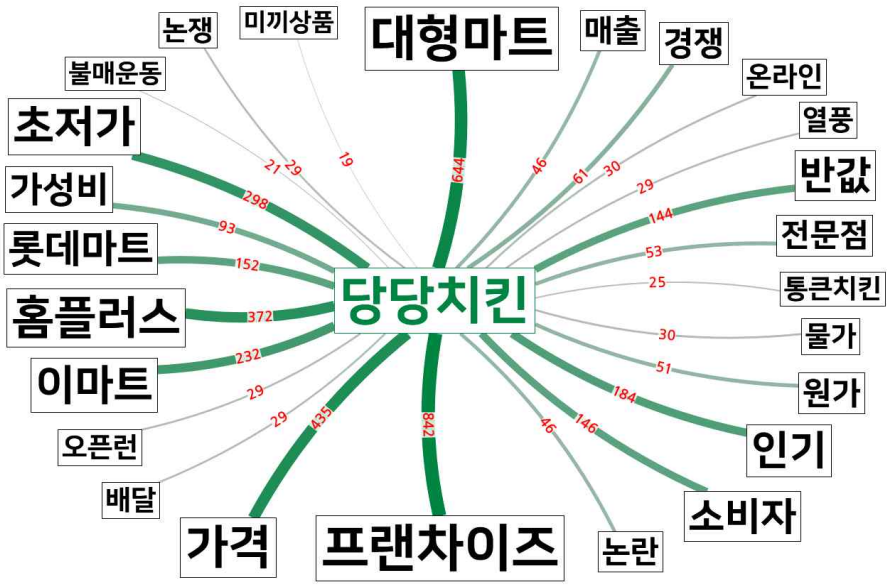


주요 단어 : 미국(882), 통과(456), 대응(74), 중국(38), 세액공제(30) 등
탄소 중립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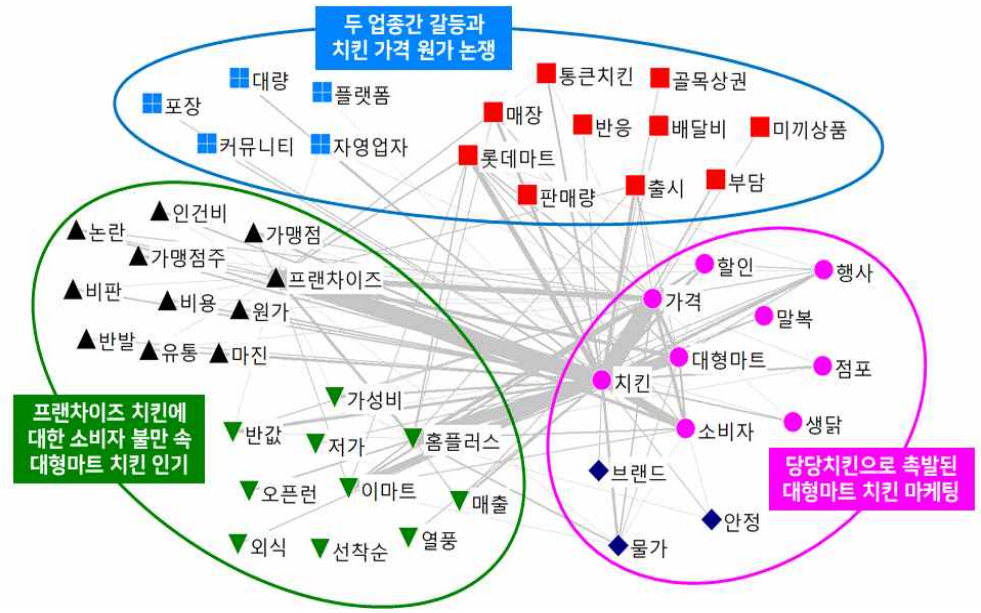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중국을 견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감축법 통과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내용

당당치킨



주요단어 : 프랜차이즈(842), 대형마트(644), 홈플러스(372), 반값(144), 원가(51) 등 당당치킨으로 촉발된 치킨의 적정 가격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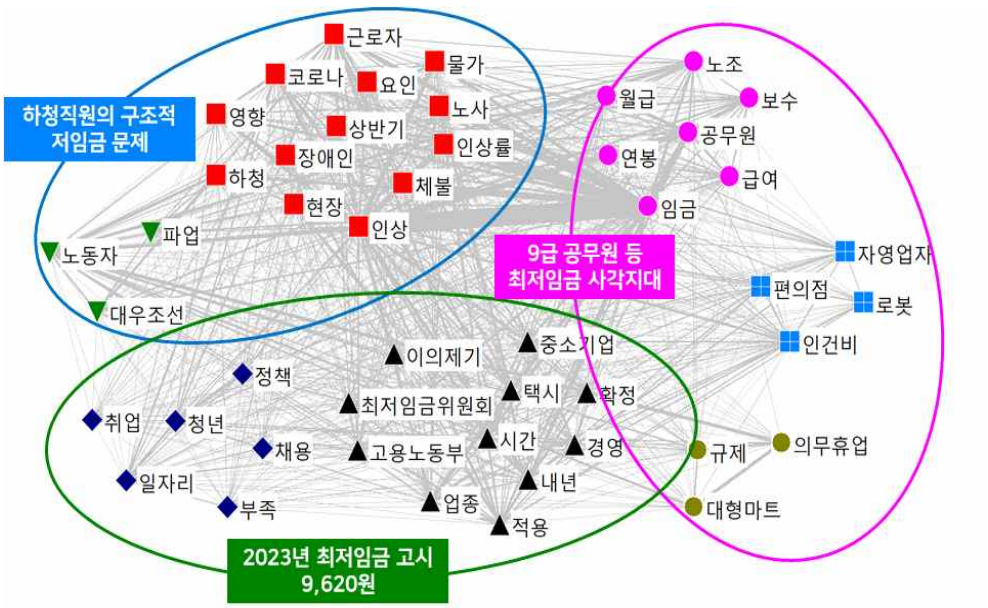


주요 주제 : 당당치킨으로 시작된 대형마트의 초저가 치킨 열풍과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프랜차이즈 업종과의 원가를 비롯한 비용 논쟁

최저임금



주요 단어 : 인상(319), 일본(127), 업종별(118), 200만원(110), 환산액(99) 등
최저임금 5% 인상과 월급 기준 200만 원 돌파



주요 주제 : 최저임금 인상 적절성 논란과 9급 공무원, 택시기사 등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적과 고질적인 하청직원 저임금 문제 제기

※ 분석 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24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인플레감축법 : 새 법안, 국내 전기차산업에 큰 위기로 대두

<연관 검색어 : 인플레이션, 전기차, 보조금, 중국, 공급망>

▌현황 및 영향

○ 8월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평가
- 기후 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으로 구성 : 기후변화 대응 3,690억 달러, 고령층 의약품 부담 경감 640억 달러 등 총 4,3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법안에 포함

○ 법안에 전기차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소재의 미국북미 등에서 생산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 급증
- 최대 7,500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①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되고, ②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공급, ③ 음극재, 양극재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제조 비율이 50% 이상 될 경우 지급하도록 결정
- 북미 지역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고, 중국으로부터의 핵심 광물 비중이 높으며 북미 지역 내 배터리 부품 기반이 모자란 국내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전망
- 보조금 제공 기준은 매년 상승하여 핵심광물의 경우 2026년 말까지 80% 이상, 배터리 주요 부품의 경우 2028년 말까지 100%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가지지 못한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에 갈수록 더욱 큰 난관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

▌대응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기업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역량과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타격을 어느 정도 완화 가능하고, 미국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는 평가
- 우리나라 산업 차원에서는 그만큼의 국내 생산기반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
-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합동대표단을 꾸려 긴급 방미
-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지형과 일정에 의해 이미 발효된 법안의 내용을 개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다수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조건 주요 내용

세액공제	적용비중	적용 조건
최대 대당 $7,500	50%	**배터리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1)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공급, 또는 2)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을 사용 * 의무조달 비율 : **'24년 이전 40%** → '24년 50% → '25년 60% → '26년 70% → '26년 말 이후 80%
	50%	**배터리 주요 부품**이 1) 북미 제조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2) 2024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외국집단"에서 조달되어서는 안 됨** * 북미제조 비율 : **'24년 이전 50%** → '24-25년 60% → '26년 70% → '27년 80% → '28년 90% →'28년 말 이후 100%
	위의 조건과 더불어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1) **전기차 최종생산이 북미 지역이어야 함(발효 이후 즉시 적용)** 2) 보조금 대상 전기차 가격 상한 조건 (차종에 따라 8만 달러 또는 5.5만 달러) 3) 구매자 소득 조건 등	

자료 : KIS Special Report, 2022.8.18.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영향"

2. 당당치킨 : 당당치킨 열풍과 프랜차이즈 가격 논란

<연관 검색어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플랫폼, 물가, 원가>

▌현황

○ 홈플러스가 저가 전략을 앞세워 판매 중인 '당당치킨'이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
- 홈플러스에 따르면 당당치킨의 누적 판매량은 8월 15일 기준 38만 마리 돌파
- 당당치킨은 소비자 가격으로만 보면 후라이드 기준 1마리 6,990원, 2마리 9,900원으로 프랜차이즈 제품의 30% 수준
- 홈플러스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42일 동안 32만 마리 이상 판매 → 1분에 5마리 꼴

○ 당당치킨이 출시되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픈런'이 잇따르는 등 선풍적인 인기
- 말복인 8월 15일에는 딱 하루만 전국 매장(밀양, 영도점 제외)에서 5,000마리 한정으로 5,990원에 판매 → '생닭보다 싼 가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 홈플러스는 '당당치킨' 상표권을 등록하고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출시 마케팅에 소극적
- 대형마트가 치킨 자영업자와 가격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 때문

○ 반값치킨 입소문은 대형마트 온라인 홈페이지 활성화에도 기여
- 홈플러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치킨'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대비 1,036% 증가
-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당당치킨' 키워드 검색 순위는 전 주 17위에서 1위로 상승

○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른 고물가 시대를 맞으면서 최저가 '마트 치킨'이 수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 소비자들은 '오픈런'을 불사하며 열광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나 대형마트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며 반박
-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5분치킨 9,980원)와 롯데마트(한통치킨 1.5마리 8,800원)까지 가세

○ 2010년 롯데마트에서 최저가 치킨을 내놓았을 때 한바탕 홍역
- 롯데마트는 당시 1마리에 5,000원인 '통근치킨'을 선보였으나 자영업자들의 비판과 소비자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1주일 만에 판매 중단

○ 지금은 12년 전과 달리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은 환영
-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개를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

○ 오히려 소비자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우세
- 상반기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3사(BBQ, bhc, 교촌치킨)가 가격 인상을 단행할 무렵에 형성됐던 비판 여론이 다시 부상

○ 저렴한 상품을 찾으려는 이들이 대형마트로 몰리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원가 논란 가속화
- 마트 치킨에 사용되는 7~8호 육계의 가격은 1kg 당 4,244원인 반면, 프랜차이즈들이 주로 사용하는 9~10호 육계의 가격은 3,923원에 책정
- 하지만 유통 구조의 차이에 따라 치킨 가격의 역전 현상 발생 →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유가공업체나 도계장에서 육계를 바로 확보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에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물류창고를 우선 거쳐야 하기 때문
- 도계장에서 창고에 오는 과정, 또 창고에서 가맹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차량비가 각각 발생 → 이 과정을 거치면 가맹점에 납품되는 육계의 가격은 제품에 따라 4,500~6,500원 남짓으로 인상
- 여기에 각 프랜차이즈가 활용 중인 식용유와 튀김가루, 치킨무, 시즈닝 등 양념과 포장비가 추가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대형마트도 지출하지만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게 임대료와 로열티, 광고비까지 추가로 부담

▌영향

○ 대형마트들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채널로 소비자들에게 인식

○ '반값치킨'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저가경쟁은 피자, 초밥으로 종류 확장 전망

-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려고 시도

○ 프랜차이즈 업계는 유통 구조와 소비 방식이 다른 만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치킨 3사(BBQ, bhc, 교촌치킨)를 필두로 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나치게 수익을 남긴다는 비판 존재

○ 궁극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유통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생닭, 기름, 양념까지 전부 도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자영업자가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조개혁이 없다면 자영업자만 패배자가 되는 상황

3.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연관 검색어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소비자물가지수, 생활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 정부는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최종 확정,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

-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2022년 대비 5.0% 상승, 월급여 기준으로는 201만 580원으로 2022년 191만 4,440원에 비해 96,140원 인상
-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순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구분	시급	월급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주 1.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5(금) 고시
2.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총 48시간×4.345주])하면 201만 580원(9,620원×209시간)으로 계산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체는 인력난

- 올해 들어 최근 휴식시간을 늘리는 식당이 속출하고 식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원가 절감 노력 경주
-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고 구인난으로 인해 평균 시급은 인상되고 있는 상황
- 구인·구직 사이트(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등록된 구인 공고는 242만 건으로 전년동기 143만 건보다 40.2%가 증가하였지만, 지원자는 총 1.3% 증가에 불과

  → 일하려는 사람보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규모 영세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아르바이트) 기회가 없는 등 어려움으로 작용

  ※ 2022년 1~6월 등록된 구인 공고의 평균 시급 : 1만354원으로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194원 더 높음

  ※ 고물가에 아르바이트 구인난이 겹치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자영업(음식점업 등)이 속출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2] 결정 단상

○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 노사 양측 모두 반대

- (근로자 측) 9,620원의 5% 이상은 실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 주장
- (사용자 측)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임금 5% 인상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호소
- 노사 양측 모두 결과에 반발하고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 심각

※ 2023년 최저임금 표결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

○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 역전 가능성

- 일본은 최근 최대 3.3%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지만, 한국은 2년 연속 5%씩 올라 결국 한국의 2023년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
- 한국에는 또한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제도)이 있어 실질 최저임금은 보다 높게 책정 중인 상황

※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달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라는 표현 사용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 신호로 활용

○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필요

-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등을 고려한 지역별(특히 수도권/비수도권)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 및 해외 사례 검토
- 노동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한 업종별 직종별 최저임금의 합리적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
-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애로 사항은 관대한 실업 보상(종전소득의 약 70~9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체계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 등이 필요

○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임금으로 하방 가이드라인 역할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비정규직과 근로시간단축 문제 해소 위한 임금체계 개편 선행 필요
-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인정하고 연공서열형과 직무급 임금체계의 융합형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별로 도입 운영하는 생활임금과도 연계

○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진행중인 생활임금 체계와 연동될 수 있도록 구상 필요

-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임금 산정시 최저임금인상률을 상당히 고려하고 최저임금 보다 전반적으로 110%~130%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
- 지자체별 생활임금 제도 도입이 최저임금제도의 무용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확정할 필요

○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최저임금 증가율 적용 검토

-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체계 및 수요변화, 최저임금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지자체별 생활임금 산정체제 변경 시 최저임금 인상률 고려
- 가구원수 변화, 주거 기준 면적이나 의료 관련 항목 추가 보완 등 지역별 생활임금산정기준에 대한 정교한 모델을 구상하고 생활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안 검토

---

2) 최저임금 산입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은 '원칙적 전부산입'되고 소정근로시간 대가 아닌 임금은 제외됨.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며, 다음의 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수당을 받음.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고정 OT수당)과 2. 연차미사용수당, 3.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은 예외)

▮ 최저임금제 효과 검증과 사업자 근로자 대상 교육 및 모니터링

○ 지역 및 업종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효과 검증 및 모니터링

-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시행이 수년이 지난 만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검증 필요
-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필요
- 지역의 개별 업종과 직종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 지불 형태 모니터링과 교육훈련 필요

○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간 원만한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안 결정 방안 고민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사민정의 갈등을 원만한 합의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합의 전 상호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상호 소통 및 자료 공유
-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상호 합리적 경제적 원칙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방향성 마련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총괄

- (책임연구자) 임규채 경제일자리연구실장
- (참여연구진) 김용현 선임연구위원, 최재원 연구위원, 박민규 연구위원, 이승아 전문위원, 박효찬 연구원, 정혜경 연구원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